

“농산물 가격 내려가니 장볼 맛 나네요”

정부 농산물 할인지원에 과일·채소 등 구매 고객 발길 이어져 사과·배·대파 등 30% 할인... 오렌지 등 수입과일도 매출 급등

“그동안 장을 볼 때마다 결제 금액이 두려울 지경이었는데, 이제야 맘 편히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네요..”

27일 오전 10시께 찾은 광주시 서구 화정동 이마트 광주점은 1층 식품매장 입구부터 과일, 채소 등 신선식품을 구매하기 위해 마트를 방문한 고객들로 가득했다.

식품매장 입구를 차지한 미국산 오렌지와 국산 사과 판매대에는 농식품부 할인 안내문이 붙어있었는데, 매대를 둘러싼 주부들은 장바구니에 과일을 담느라 여념이 없었다.

특히 계속된 가격 상승으로 매년 최고가를 경신해왔던 사과의 경우 1봉(5-6입)에 기준 1만2700원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30% 할인된 8890원에 판매되면서 고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정수현(여·38)씨는 “아침사과가 금(金)사과라고 해서 남편과 아이들을 매일 아침 챙겨줬는데, 그동안 사과가 너무 비싸서 바나나를 식탁에 올렸었다”며 “사과값이 지금도 여전히 비싸기는 하지만 마트에서 할인판매한다고 하니 구매하려고 마트를 방문했다”고 웃어보였다.

같은날 오후 1시께 방문한 롯데마트맥스 상무점 역시 간만에 신선코너가 활기를 띠었다.

특히 ‘농식품부 30% 할인’ 문구가 붙은 정부 지원 할인품목인 사과, 대파 등의 매대 앞에는 주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김지현(여·43)씨는 “대파는 요리를 하면 필수적인 식재료다. 매일 밥상에 오르는 국부터 아이들이 좋아하는 볶음밥 등 쓰이는 곳이 많다”며 “그동안 대파 가격이 올라 살림 지출도 크게 늘었는데, 할인

판매하니 부담을 덜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유통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농산물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할인 지원을 펼치면서, 광주지역 소재 대형마트에서도 오랜만에 값싼 과일과 채소를 구매하기 위한 지역민으로 활기를 띄고 있다.

비싸서 사먹지 못했던 과일과 채소를 비교적 싼 가격에 살 수 있게 되면서 주부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대형마트들은 배, 토마토 등 과일류와 대파, 오이, 애호박 등 9종의 채소류에 대해 최대 30% 할인 판매하고 있다.

할인 판매 덕에 과일 매출도 크게 신장하고 있다.

수요가 많았던 오렌지는 지난 20일 기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2% 뛰었고, 망고(55%), 파인애플(25.9%), 바나나(17.7%)가 뒤를 이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크게 뛰는 농산물의 납품단가 및 할인지원, 과일 직수입 할인 판매 등에 1500억원을 추가 투입하며 먹



27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이마트 광주점 1층 식품매장을 찾은 지역민들이 과일, 채소 등 할인판매하는 신선식품들을 둘러보고 있다.

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총력전을 선포한 바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정부의 할인정책에 유통업체가 동참하면서 고물가에 위축됐던 지역민들의

장보기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글·사진·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엠브로’ 신규 입점

27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스포츠브랜드 ‘엠브로’ 매장 직원들이 바람막이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점 엠브로 매장은 지난 26일 신규 오픈했다. 영국 대표 스포츠 브랜드 ‘엠브로’는 스포츠 패션을 기본으로, 스트리트 감성의 디자인으로 M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엠브로는 신규 오픈 기념으로 오는 31일까지 구매고객에게 스포츠 양말을 증정하고, 30만원 이상 구매 시 보스톤백을 증정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애주가 위한 역대급 ‘주주(宙酒)총회’ 개최

롯데마트·슈퍼 4월17일까지 와인·위스키 등 1000여종 판매

롯데마트와 롯데슈퍼는 28일부터 4월17일까지 주류 할인 행사인 ‘주주(宙酒)총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

주주총회는 롯데마트·슈퍼가 위스키, 증류식 소주 등 다양한 주종과 주류용품까지 선보이는 연중 최대 규모의 주류 할인 행사다.

이번 행사는 고객들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성비 주류 상품을 중심으로 준비됐다.

올해는 롯데마트와 MAXX(맥스), 롯데슈퍼 26개 매장에서 인기 와인, 위스키, 사케 등 1000

여종의 상품을 선보인다.

특히 맥켈란, 발베니, 글렌피딕, 야마자키 등 인기 위스키는 고객 편의성을 위해 오는 28일과 4월 4일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한정 판매한다.

와인과 양주 외에도 롯데마트·슈퍼의 단독 상품인 ‘국민 맥주(500ml)’를 할인 판매하며, ‘한라산 소주 동백 에디션(360ml·6병)’, ‘시치켈 후리빈잔 준마이(720ml)’도 선보인다.

구매하고 싶은 제품의 점포별 재고 및 가격 정보는 ‘롯데마트 GO’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특히 롯데마트에서는 오는 4월 3일까지 ‘와인’ 품목 행사카드로 결제 시 최대 5만원을 추가 할인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봄철 기력회복엔 ‘제철 장어’가 딱

이마트 광주점, 반값 할인

장어가 봄철 보양식으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7일 이마트 광주점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5일까지 장어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96.5% 신장했다.

특히 올 3월 장어 매출 구성비율은 수산물 전체 매출 중 13.3%를 차지해 전년 동월(7.3%)에 견줘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점에서 최근 2년간 3·4월 장어 매출 구성비는 매년 증가해, 7·8월을 제외하면 매출 구성비가 가장 높았다.

장어의 수요 증가 배경에는 타 보양식에 비해 사전에 손질된 상품을 집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장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광주점에서 판매중인 ‘국산 민물장어구이’는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해도 된다는 점에서 고객들의 반응이 좋다.

또 전문 식당에서나 맛볼 수 있었던 토종 민물장

어 품종 ‘자포니카’ 역시 광주점 장어 매출 신장에 한몫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점은 소비자들의 장어 수요 증가에 힘입어 오는 29일부터 4월4일까지 ‘온가족 손질바다장어(700g·국산)’를 S-POINT 50%할인 적용시 2만4900원에, ‘한가득 손질민물장어(600g·국산)’를 4만9800원에 할인 판매한다.

김세민 이마트 광주점장은 “봄에도 수산 식재료를 중심으로 보양식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다”며 “특히 장어는 손질과 조리의 간편함으로 봄을 대표하는 보양식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상담문의: 062-449-4446